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9. 26. - 10. 02.

# 전남농업정보

104  
VOL

## 기상전망

##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쌀 재배 동향
- 최근 배추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출하 및 가격전망
- 한·육우 사육과 가격 상승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내 토종닭 종란, 중앙아시아에 수출
- 육류 수출 검역관리 업무 간편화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이제는 국산 양파로!
- 수출유망 “코젯(유럽애호박)” 재배 연구

## 정책동향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홍보 전문가 미디어파머 양성
- 제조·가공시설 공동 활용해 6차산업 활성화

## 사업신청 및 홍보

- 2016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기압골 영향으로 8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조금 높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8

- ▶ 예보 : 무·배추 바이러스병, 노균병,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9

- ▶ 쌀 재배 동향
- ▶ 최근 배추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출하 및 가격전망
- ▶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4

- ▶ 여수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 ▶ 순천시, 매실 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17억 지급
- ▶ 고흥군, 벼 적기 수확 현장 기술지도에 나서
- ▶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 상표등록 완료
- ▶ 해남군,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지도 강화
- ▶ 무안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벼 매입
- ▶ 진도군, 11월말까지 휴일에도 농기계 빌려줍니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1

- ▶ 국내 토종닭 종란, 중앙아시아에 수출
- ▶ 육류 수출 검역관리 업무 간편화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3

- ▶ 시설재배 애호박에서 작은뿌리파리 물리적 방제법
- ▶ 패션프루트 제산을 위한 에틸렌 적정 처리 농도
- ▶ 목이 종류별 적정 생육온도 관리
- ▶ 흑목이 『광이』 (JNM-Mi-181)
- ▶ 이제는 국산 양파로!
- ▶ 수출유망 "코젯(유럽애호박)" 재배 연구
- ▶ 파프리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확량 예측프로그램 개발
- ▶ 참다래 고품질화로 수출 확대 추진
- ▶ 냉·온수를 이용한 원예작물 간이 육묘시설 개발
- ▶ 국산 과일·버섯 품종,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다
- ▶ 스마트 돈사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39

- ▶ 곤충전문 컨설턴트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 41

-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홍보 전문가 미디어파머 양성
- ▶ 제조·가공시설 공동 활용해 6차산업 활성화
- ▶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종자검사 교육 실시
- ▶ 10월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해외 농업정보 ..... 44

- ▶ 러시아, 쌀 시장 성장세
- ▶ 중국, 우유 소비 촉진과 농촌고용을 위해 낙농산업 육성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0. 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8%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2% 상승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9

- ▶ 2016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 ▶ 농업누리관, 체험활동 본격화
- ▶ 국산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종자 신청하세요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4	17.2	1.2	22.9	23.3	-0.5	13.9	12.3	1.6	1.9
10. 06.(목)	22.0	17.5	4.5	26.0	23.4	2.6	18.0	12.8	5.2	1.5
10. 07.(금)	21.0	17.3	3.7	25.0	23.4	1.6	17.0	12.4	4.6	1.5
10. 08.(토)	19.5	17.3	2.2	24.0	23.6	0.4	15.0	12.2	2.8	1.7
10. 09.(일)	18.5	17.3	1.2	23.0	23.5	-0.5	14.0	12.3	1.7	2.1
10. 10.(월)	17.5	17.3	0.2	22.0	23.5	-1.5	13.0	12.2	0.8	1.9
10. 11.(화)	16.0	17.2	-1.2	21.0	23.4	-2.4	11.0	12.1	-1.1	2.1
10. 12.(수)	16.0	17.1	-1.1	21.0	23.1	-2.1	11.0	12.1	-1.1	2.2
10. 13.(목)	16.5	16.8	-0.3	21.0	22.7	-1.7	12.0	11.9	0.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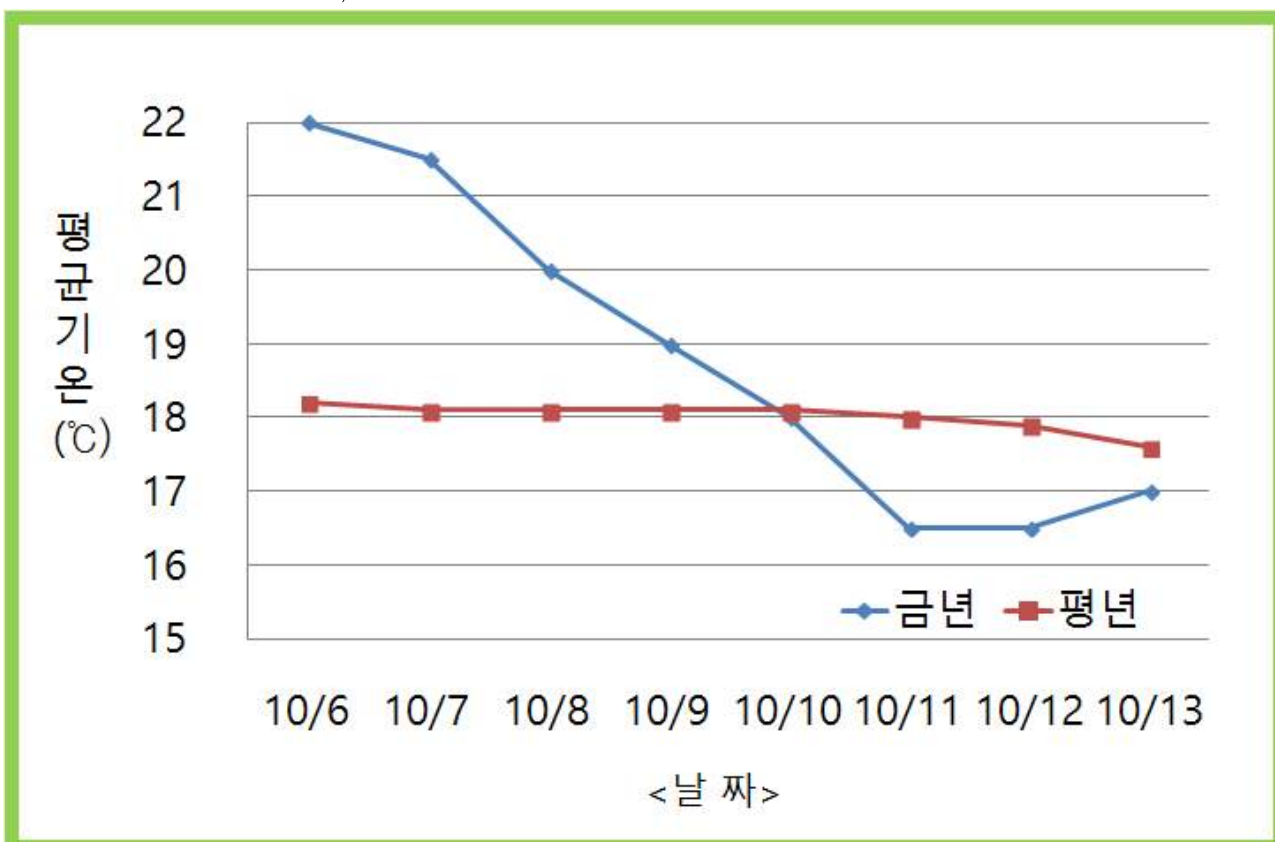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8	18.0	0.8	22.8	23.4	-0.6	14.9	13.9	1.0	2.1
10. 06.(목)	22.0	18.2	3.8	25.0	23.5	1.5	19.0	14.2	4.8	1.8
10. 07.(금)	21.5	18.1	3.4	25.0	23.5	1.5	18.0	13.9	4.1	1.8
10. 08.(토)	20.0	18.1	1.9	24.0	23.6	0.4	16.0	13.8	2.2	1.7
10. 09.(일)	19.0	18.1	0.9	23.0	23.5	-0.5	15.0	13.9	1.1	2.5
10. 10.(월)	18.0	18.1	-0.1	22.0	23.5	-1.5	14.0	13.9	0.1	2.3
10. 11.(화)	16.5	18.0	-1.5	21.0	23.4	-2.4	12.0	13.8	-1.8	2.3
10. 12.(수)	16.5	17.9	-1.4	21.0	23.1	-2.1	12.0	13.8	-1.8	2.3
10. 13.(목)	17.0	17.6	-0.6	21.0	22.9	-1.9	13.0	13.5	-0.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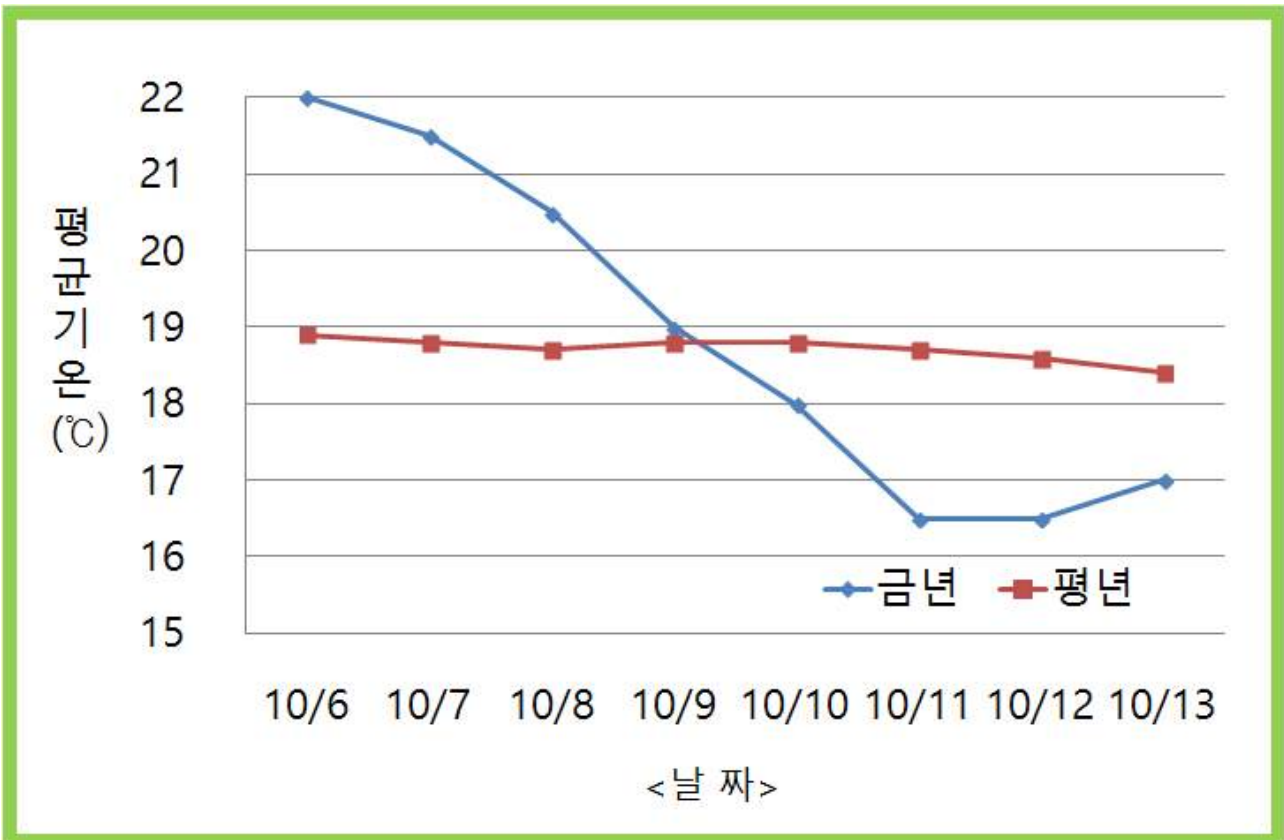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9	18.7	0.2	21.8	22.5	-0.7	16.0	15.6	0.4	2.2
10. 06.(목)	22.0	18.9	3.1	24.0	22.5	1.5	20.0	15.9	4.1	1.6
10. 07.(금)	21.5	18.8	2.7	24.0	22.4	1.6	19.0	15.8	3.2	1.7
10. 08.(토)	20.5	18.7	1.8	23.0	22.5	0.5	18.0	15.7	2.3	1.3
10. 09.(일)	19.0	18.8	0.2	22.0	22.5	-0.5	16.0	15.8	0.2	2.6
10. 10.(월)	18.0	18.8	-0.8	21.0	22.6	-1.6	15.0	15.8	-0.8	2.6
10. 11.(화)	16.5	18.7	-2.2	20.0	22.6	-2.6	13.0	15.6	-2.6	2.6
10. 12.(수)	16.5	18.6	-2.1	20.0	22.5	-2.5	13.0	15.4	-2.4	2.5
10. 13.(목)	17.0	18.4	-1.4	20.0	22.3	-2.3	14.0	15.1	-1.1	2.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10. 01. ~ 10. 31.)

농촌진흥청은 무·배추 바이러스병, 노균병,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시설작물의 바이러스병,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등에 대해 예보를 발표 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보 : 무·배추 바이러스병, 노균병

- 바이러스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하고, 노균병은 비가 자주 올 경우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병든 포기는 뽑아냄

### □ 예보 :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 예보 :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 가지과 작물의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등 바이러스병을 예방하고 시설작물에 발생하는 해충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약제, 끈끈이 트랩, 방충망 설치 등으로 철저히 방제

### □ 예보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 내년도 발생밀도를 줄이기 위해 과원 및 인근산림지역의 산란된 피해 가지는 전정, 소각으로 추가 피해방지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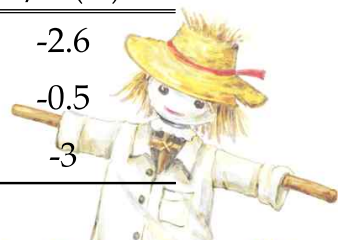


###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쌀 재배 동향

- 기상여건 금년 벼 생육에 유리하게 경과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정한 기온과 일교차가 유지되었고 일조시간도 평년보다 늘어나 금년 등숙기 기상여건은 벼 생육에 매우 유리하게 경과
  - 9월 상순 기준,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의 2016년산 조생종과 중만생종 벼 생육상황은 지난해와 '비슷' 하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55.3, 53.5%로 가장 높게 조사
- 2016년산 쌀 생산량 지난해 대비 13만톤 감소한 420만톤 내외 전망
  - 2016년 벼 재배면적은 시설공사, 건물건축, 공공시설 증가와 타작물 전환을 권장하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6% 감소한 77만 8,734ha
  - 2016년산 쌀 예상단수는 태풍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상조건이 좋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a당 539kg 내외 전망
  - 2016년 벼 재배면적 77만 9천ha에 예상단수를 적용하면, 금년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13만톤) 줄어든 42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2015년산(A)	2016년산(B)	B-A	B/A(%)
면적(천ha)	799	779	-21	-2.6
단수(kg/10a)	542	539	-3	-0.5
생산량(천톤)	4,327	4,199	-128	-3



## 최근 배추가격 상승원인과 향후 출하 및 가격전망

### □ 최근 배추 가격동향

- 추석 직후(9.19.~24.) 배추 가격은 추석 이전보다 하락 하였으나, 9.26.~28.에 다시 상승
- 가격 상승 원인은 고랭지배추가 조기에 출하 마무리되고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 지연에 따른 공백과 김치업체 수요 증가 때문

### □ 10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적으나, 11월에는 크게 증가할 전망

- 10월 상·중순 출하될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량 지난해보다 적을 전망
- 10월 하순 출하될 가을배추 출하량은 정식 지연으로 지난해보다 적으나, 작황이 좋고 출하지역 확대로 10월 상·중순보다 많을 전망
- 11월 출하량은 10월 하순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

### □ 10월 가격은 9월 하순보다 낮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 10월 상순 가격은 9월 하순 대비 포함세이나, 중순부터 하락 전망
  - 10월 상순 가격은 9월 하순(19,000원/10kg, 상품) 대비 포함세를 유지하나, 중순부터는 준고랭지 2기작이 본격화되면서 하락세 전망
  - 10월 하순 가격은 10월 중순보다 출하량 확대로 10,000원 내외로 하락할 전망
- 11월 가격은 10월 하순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
  - 11월 상순부터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평균 가격은 10,000원 이하로 하락 전망

##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지난해 대비 감소 예상

- 9월 사육 마릿수 지난해 동월(275만 3천마리)보다 감소한 275만마리 (한우 263만마리) 전망
- 12월은 지난해 동월(268만마리)보다 감소한 264만 마리(한우 252만 마리) 전망

### □ 10~11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0~11월 도축은 지난해보다 7~9% 감소 전망
-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지난해보다 8% 증가 전망

### □ 10월 한우 도매가격 9월 대비 보합 전망

-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9월과 비슷한 수준 전망
- 예년 추석과 달리 구이용(등심, 특수부위 등) 재고 적체현상이 없고 거의 소진(중앙자문회의 결과)

### □ 수급상황 10월 이후 수요 불확실성 확대 예상

	가격 상승요인	가격 하락요인
수요	재고부족(구이용)	소비위축(김영란법)
공급	도축 마릿수 감소	수입량 증가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0. 04.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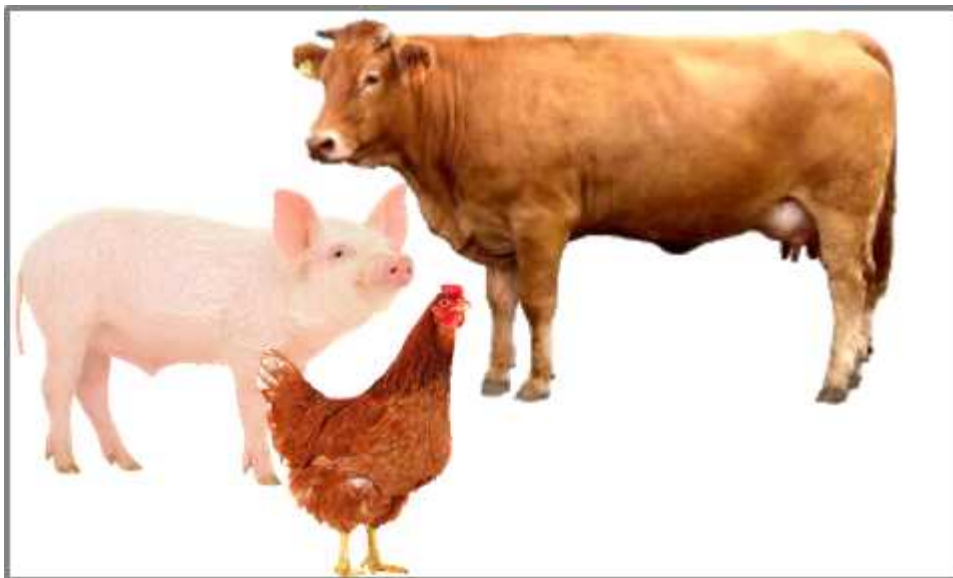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04)	1주일전 (09/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지난해 대비	평년 대비
식작물	쌀(일반계)	20kg	29,000	33,800	34,850	39,650	40,867	↓ 26.9	↓ 29.0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250	137,000	182,100	↑ 10.9	↓ 16.5
	고구마(밤)	10kg	26,000	26,400	29,300	22,550	24,847	↑ 15.3	↑ 4.6
	감자(수미)	20kg	25,000	25,200	24,400	24,600	25,667	↑ 1.6	↓ 2.6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1,780	1,980	2,320	570	664	↑ 212.3	↑ 168.1
	양배추	10kg	9,600	9,100	9,700	6,025	7,315	↑ 59.3	↑ 31.2
	오이(다다기계통)	10kg	28,333	32,333	43,250	18,333	22,695	↑ 54.5	↑ 24.8
	애호박	8kg	25,000	21,600	36,800	10,400	13,497	↑ 140.4	↑ 85.2
	토마토	10kg	36,800	29,200	27,750	22,650	33,133	↑ 62.5	↑ 11.1
	당근	20kg	45,400	44,600	46,500	34,700	46,793	↑ 30.8	↓ 3.0
	건고추(화건)	60kg	620,000	640,000	657,500	830,000	941,333	↓ 25.3	↓ 34.1
	풋고추	10kg	48,000	54,000	108,500	24,750	28,827	↑ 93.9	↑ 66.5
	마늘(깐마늘)	20kg	140,000	140,000	133,500	133,000	110,400	↑ 5.3	↑ 26.8
	양파	20kg	18,400	18,600	18,200	28,000	18,467	↓ 34.3	↓ 0.4
	대파	1kg	2,230	2,440	2,485	2,033	1,666	↑ 9.7	↑ 33.9
	파프리카	5kg	24,000	26,200	25,750	18,450	29,410	↑ 30.1	↓ 18.4
	멜론	8kg	21,200	19,800	21,550	21,400	23,393	↓ 0.9	↓ 9.4
	방울토마토	5kg	30,800	20,000	19,500	13,300	17,370	↑ 131.6	↑ 77.3
수박	1개	12,400	13,400	17,550	11,400	10,313	↑ 8.8	↑ 20.2	
과일류	사과(홍로)	10kg	31,400	34,200	46,100	36,633	33,160	↓ 14.3	↓ 5.3
	배(신고)	15kg	38,000	41,800	54,250	42,500	38,113	↓ 10.6	↓ 0.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04)	1주일전 (09/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지난해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4,000	526,000	540,000	530,000	555,667	↓ 1.1	↓ 5.7
	느타리버섯	2kg	13,200	13,800	17,750	13,750	13,067	↓ 4.0	↑ 1.0
	새송이버섯	2kg	9,000	8,600	9,950	8,300	8,637	↑ 8.4	↑ 4.2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29	7,939	7,981	7,534	6,722	↑ 5.2	↑ 18.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07	2,178	2,075	2,011	1,786	↓ 0.2	↑ 12.4
	닭고기	1kg	5,331	5,630	6,197	4,883	5,633	↑ 9.2	↓ 5.4
	계란(특란)	30개	5,594	5,523	5,592	5,713	5,711	↓ 2.1	↓ 2.0
	우유	1리터	2,544	2,555	2,551	2,547	2,439	↓ 0.1	↑ 4.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도내 사정으로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여수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 쌀 경쟁력 제고 위한 변화의 자리 마련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7일 돌산읍 둔전단지에서 농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벼농사를 평가, 분석하기 위한 '2016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 최근 몇년 간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1인당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재고량도 늘고 있는 실정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적정 생산량 유지와 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여수시는 지난 2004년부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쌀 생산 핵심기술과 저비용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지속가능 유기인증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개소 13.7ha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했다.
- 올해는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무논 직파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왔다.
-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최고의 품종을 선발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벼 품종 비교전시포(시범농장)를 운영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벼농사 종합평가회는 '벼의 단순재배에서 쌀 생산'으로 농가의 인식을 변화시켜 다양화된 쌀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 ■ 순천시, 매실 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17억 지급

- 순천시는 매실 저온 및 서리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로 2,385농가에 17억 2,90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지난 3월 저온 및 서리로 매실 꽃봉오리 착과불량 및 고사 현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매실농가 2,385농가로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와 농약대를 지원하게 된다.
- 또한, 피해농가 222명에게 농축산경영자금 9억 7,000만원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앞서 시는 피해농가의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과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해 국비 11억 1,300만원, 도비 2억 3,800만원, 시비 3억 7,800만원을 확보했다.
- 시 관계자는 “매실 개화기에 발생한 이상기온으로 매실농가의 피해가 컸다”며 “재난복구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한편, 전국 매실 재배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는 올해 1,302ha에서 매실 5,191톤을 생산해 지난해 6,895톤에 비해 수확량이 24% 감소했다.

\* 출처 : 순천시



## ■ 고흥군, 벼 적기 수확현장 기술지도에 나서

- 고흥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맞아 최고 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분담 후기관리 등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의 벼 품종별 수확적기는 중만생종 품종은 출수 후 50~55일 정도가 알맞은 시기로 이 시기는 외관상, 한 이삭의 벼 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로 10월 상·중순이 벼 베기 적기라고 30일 밝혔다.
- 또한, 벼의 미질은 건조·저장관리 상태가 크게 관여하므로 급격한 건조는 쌀알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 50℃ 이상 과도하게 건조하면 맛과 품질까지 떨어지므로 화력건조기를 이용할 때 종자용은 40℃ 이하, 일반용은 45~5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콤바인 작업속도와 탈곡 회전수가 벼 손실의 큰 요인이 된다”며, “반드시 표준작업속도(0.85m/sec)와 탈곡 회전수(분당 460~500)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 상표등록 완료

- 맑고 깨끗한 보성의 품격, BI(Brand Identity) 4종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 BI(Brand Identity) 4종 16건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용에 나섰다.
- 지난 5월 3일 제42회 보성군민의 날을 맞아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7월에는 관리조례 제정을 마친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는 청정보성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우수 농특산물에 한해 보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브랜드로써 시각적으로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BI 활용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미미보 BI는 보성의 맛과 멋, 향을 표현할 수 있는 4개의 선(녹차·쌀·과일·채소)과 3경(景) 3보향(寶鄉)을 뜻하는 3개의 선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보성의 대표 경관인 차밭에서 인용한 패턴을 녹색과 흰색만을 사용해 맑고 깨끗한 보성의 자연과 품격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엄선된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보성군에서는 미미보 브랜드 사용을 위해서는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확보는 물론 미미보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출처 : 보성군



## ■ 해남군,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지도 강화

- 작업 전 농기계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

- 해남군이 가을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지도 강화에 나섰다.
-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10월과 11월은 연중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군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농기계 점검·정비, 음주운전 금지, 해질 무렵 운전주의, 도로주행 시 등화장치 부착 등 농기계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해남군은 올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군비 3억 7,500만원을 투입,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해 올해 관내 1만 1,157명의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했다.
- 또 등화장치가 노후화 되는 등 야간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은 불빛에서도 쉽게 감응하는 고휘도 반사지 834매를 제작해 경운기 등 농기계 후면에 부착하기도 했다.
- 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인 농업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기계 파손 등 재산 손실도 크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출처 : 해남군

## ■ 무안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벼 매입

- 매입물량 5,643톤(14만 1000포대/40kg)··· 다음달 7일부터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다음달 7일부터 20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에 들어간다.
- 군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곡 물량 5,643톤(포대벼 3,642톤, 산물벼 2,001톤)에 대해 읍·면별로 배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7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도 배정물량 5,567톤보다 76톤이 늘어난 물량으로, 40kg포대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보다 1,910포대가 늘어난 물량이다.
-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64원/40kg을 차감한 가격이다. 특히 대형포장 P·P포대는 헌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퍼식 대형포장재 규격만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가공용 품종(보람찬·한아름·드래찬 등)이 공공비축미곡에 혼입될 경우 밥쌀용 쌀의 미질이 저하되므로, 농가에서는 매입 현장에 가공용 쌀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2016년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지급한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1등급 기준으로 45,000원(40kg)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산지쌀값 동향을 검토해 우선지급금을 11월 중에 재산정할 계획이다.
- 한편, 건조벼 매입은 11월 초순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출처 : 무안군



## 진도군, 11월말까지 휴일에도 농기계 빌려줍니다

- 국·공휴일 근무, 평일 11시간 근무제 실시 농가편의 향상 -

- 진도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가편의 향상을 위해 국·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난 9월초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 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일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연장하고 휴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 콤팩트,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누구나 임대 사용이 가능하다.
- 9월 현재 진도군은 89종 437대 농기계를 갖추고 군내면 송산리와 임회면 용호리, 조도면 창유리 등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군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농번기 11시간 근무제 실시를 통해 영농작업에 바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새벽같이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전날 오후 5시에 출고하는 예약 제도도 함께 운영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임대,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진도군

##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국내 토종닭 종란, 중앙아시아에 수출

- (주)한협, 키르기즈스탄에 토종닭 종란 1만개 수출 -

- (주)한협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개의 종란을 키르기즈스탄으로 수출했다. 현재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출된 1만여개의 종란은 한협이 키르기즈스탄 현지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부화 후 시범사육 중이다.
- 한협에 따르면 시범사육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인 실용계 생산에 돌입해 현지 농가나 사육업체 등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협 관계자는 “현재는 종란을 수출해 현지 적응력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국내 토종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한협 측은 향후 키르기즈스탄에서의 토종닭 적응과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키르기즈스탄을 수출 거점기지로 삼고, 중국과 베트남 등에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협 관계자는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실험과 분양이 이뤄지면, 이곳을 거점기지로 삼고 크기가 큰 닭의 수요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토종닭협회 측은 한협의 토종닭 수출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국내 토종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종닭협회는 한협이 토종닭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육류 수출 검역관리 업무 간편화

- 11월 1일부터 관리수의사 대신 업체 위생관리 담당자 처리 가능 -
-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물량이 적은 육류 가공장의 경우 검역관리 업무를 관리수의사 대신 해당업체 위생관리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축산물 수출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육가공공장이 수출검역 시행장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발생으로 한정된 국가에만 적은 물량이 수출되는 상황에서 수출 검역 업무만을 위한 관리수의사 채용과 인건비 지출이 영세한 수출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초기 수출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를 중심으로 육류 수출가공장에 대한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폐지 및 자체인력 대체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수출 육류 생산일이 월 평균 3일 이하인 가공장의 경우 관리수의사 대신 해당업체 소속의 HACCP 관계자가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육류 수출 신규업체는 수출 육류가공장 지정 신청 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관할 검역본부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업체는 '수출육류 생산실적서'를 제출하면 예외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검역본부는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육류 생산계획(실적)의 예외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기준에 미흡할 때에는 관리수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시설재배 애호박에서 작은뿌리파리 물리적 방제법

#### □ 개발기술 내용

- 배지피복+맞춤형 황색점착트랩 설치로 작은뿌리파리 완벽 차단
- 배지피복+맞춤형 황색점착트랩 설치 순서



※ 피복된 슬라브에는 작물 정식 후 맞춤형 황색점착트랩만 부착

- 처리별 작은뿌리파리 유충밀도 및 수확과수

처리내용	유충밀도(마리/배지 100g)	수확과수(개/주)
흑백필름+맞춤형 황색점착트랩	0	13.0
흑색부직포+맞춤형 황색점착트랩	0	11.3
관행(무피복+황색점착트랩)	30	6.0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수국 재배농가 현장실증 및 컨설팅으로 대농민 홍보 및 기술보급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단 1회의 피복 및 황색점착트랩 부착으로 작은뿌리파리 완벽 예방
- 근권 온도 안정으로 관행대비 230% 증수
- 방제소요 노동시간(10a) : 88시간(30회) → 8시간(1회)으로 개선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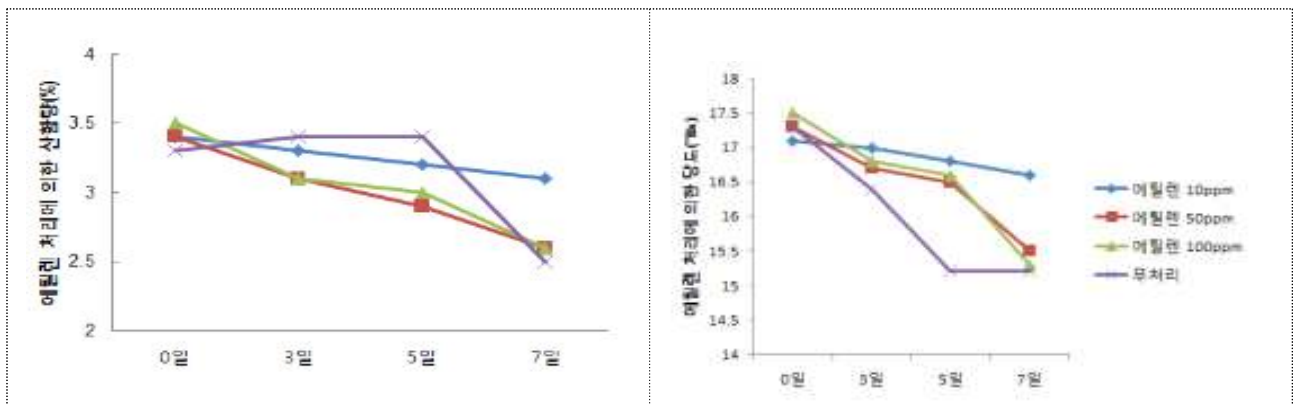
## 패션프루트 제산을 위한 에틸렌 적정 처리 농도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이동과 새로운 소득자원 관심증가로 아열대 과수인 패션프루트 재배면적 증가
  -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현황: 17ha(담양·장성·무안·광양 등)
- 과비 및 장마철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착색 불량한 패션프루트가 생산되기 때문에 착색증진과 제산을 위해 농가에서는 상온 저장함
- 상온 저장 시 과일표면은 쭈글거림이 심해져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패과 발생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됨

### 개발기술 내용

- 과비 및 장마철에 의한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해 착색 불량한 패션프루트는 25°C, 에틸렌 50ppm, 5일 처리하면 14.7% 제산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패션프루트 재배농가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상품과율 증가: 30 → 70%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변만호, 박재욱



## ■ 목이 종류별 적정 생육온도 관리

### □ 개발기술 내용

- 목이 봉지재배시 타공 형태는 / 모양이 가장 적합함
  - / 모양 타공 시 19초 소요되며 X 모양 대비 53% 생력적임
  - 수량은 / 모양 228.1g/0.9kg, X 모양 228.1g/0.9kg으로 비슷한 수준임



【타공방법별(/, -, ×자) 자실체 생육 / 건이(털목이), Mi-181(흑목이)】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0.9kg들이 내열성 비닐봉지에 목이류 배지를 조제한 다음 배양이 완료된 후 10일경 배지에 / 모양으로 타공(6공 6cm)한 다음 밭이 (온도 20~26℃, 습도 90%) 및 생육시켜 20일경 수확함
- 농가실증시험 및 종균배양소를 통한 보급체계 구축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목이버섯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수입대체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이숙재, 김길자



## ■ 흑목이 『광이』 (JNM-Mi-181)

### □ 육성내력

- 교배조합 : JNM21008(NAAS 01031)/JNM21013(NAAS 01239)
- 교배년도 : 2009년(Di-Mono 교잡 및 계통선발)
- 생산력 검정시험 : 2012~2014

### □ 품종 주요특성

- 갓은 연한 연갈색으로 표면에 주름이 약간 있고 부채꼴형임
- 뒷면에는 잔털이 거의 없음
- 자실체 발생수는 대조품종 보다 많은 편임
-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조직이 연하여 씹힘성이 우수함
- 갓이 얇고 저장성 및 병해충에 강함
- 원균배양에 알맞은 배지는 MCM, 맥아, PDA임



### □ 재배상 유의점

- 재배기간 중 시설내 습도 유지와 환기에 유의
- 버섯 발생 시 수분 공급이 적어지면 발이가 늦어지고 균일하지 않음
- 15℃이하에서 재배 시 자실체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꺼워지며 형태가 균일하지 못하며 재배환경에 따라 생육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 육성 품종 보급계획과 파급효과

- 국내 육성 품종 보급체계 구축 및 품종 등록 추진
- 목이류 등 7품목 로열티 경감 : 연간 52억원 예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이숙재, 김길자

## ■ 이제는 국산 양파로!

- 전남농기원, 국산 양파 신품종 육성으로 수입종자 대체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다수성, 내재해성 양파 신품종을 육성하여 국내 종자 수입을 대체하고 재배농가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품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양파재배 면적은 18,015ha가량 재배되고 있으며, 전남은 9,171ha, 약51%가 재배되었다. 주 재배지역으로는 무안·신안·함평 순서로 전남이 주를 이루며, 생산액은 2,068억원으로 전남 주요 소득 작목중 하나이다.
- 그러나 양파는 경영비중 종묘비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묘비의 대부분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수입종자에 의존하여 재배되고 있어 생산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전남농업기술원은 양파 종자 수입대체와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전남의 재래종을 수집, 우수 계통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양파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양파는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조생, 중생, 중만생, 만생으로 나뉘며 조생은 5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한 양파로 주요 품종으로는 마루시노·로망·싱싱볼 등이 있고, 수확이 빠르고 수량이 높은 품종이 선호되고 있다.
- 중만생은 5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한 양파로 주요 품종으로는 파워볼·칸타타·대칸마루 등이 있으며, 병충해에 강하고 구모양이 동그란 원형이며 수량이 높은 품종이 선호되고 있다.



○ 현재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고흥과 제주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극조생 대비종에 비해 2~3일 일찍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이 9% 높은 극조생 양파와 무안과 창녕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중만생 대비종에 비해 분구율이 낮고 구모양이 원형인 중만생 양파를 육성하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연구사는 “전남에서 수집하고 전남에서 육성하여 개발한 전남 도민의 양파가 이제야 나왔다”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도 농민들의 요구와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극조생 전남1호 및 마루시노(대비)

▲ 중만생 전남2호 및 센파워(대비)

## ■ 수출유망 "코젯(유럽애호박)" 재배 연구

-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인이 즐겨먹어 다양한 국가에 수출 가능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도내 수출 채소 품목다변화와 수출 농업 강화를 위해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서 애용하는 코젯(Courgette)에 주목하고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신선채소는 파프리카·딸기·토마토 정도로 품목 수가 한정되어 있고 파프리카 이외의 품목들은 수출물량도 많지 않다. 최근 파프리카는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내수가격도 30% 이상 하락했다.

- 이에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경영성이 점차 악화되면서 작목전환을 고민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지만 고투입 유리온실에 적용할 만한 작목을 찾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이에 따라 전남농기원은 2013년부터 전 세계가 애용하는 대표 애호박인 “코젯”을 도입하고 일부 품종선발, 수경재배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개발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중연구를 통해 2020년 공식 수출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페포종 애호박을 선호하는 반면 국내에서 재배, 유통되는 애호박은 대부분 모샤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이용되고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아 여러 번 수출을 추진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반면, 최근 유럽에서 개발된 코젯 품종은 전 세계인이 즐겨먹고, 맛과 열매의 단단하기가 국내 애호박과 매우 비슷해 국내 소비자 입맛에도 잘 맞고, 다양한 동서양의 요리가 가능한 장점으로 내수 및 수출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코젯이 수출 신규 품목으로 자리잡게 되면 수출 품목 다변화는 물론 파프리카와 같이 과잉 생산되는 수출 농산물의 재배면적 조절도 가능해 내수가격 안정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에 필요한 환경관리, 정밀 수경재배기술 등 수출 코젯 재배 매뉴얼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파프리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확량 예측프로그램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대학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파프리카 온실의 내·외부환경, 생육변화, 수확량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육 및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전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대규모 파프리카 온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2006년 355ha에서 2014년 598ha로 약 1.8배가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총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파프리카 연평균 가격은 5kg 한 박스 가격이 2010년 33,886원에서 2015년 21,887원까지 약 35%가 하락하였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규모로 운영되는 파프리카 온실의 경영성 개선 및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파프리카 생육 및 수확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측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순집기, 유인작업, 병해충 예방용 천적투입, 난방연료 등 적정작업 및 투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소요되는 인력, 자재, 연료량 등도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 이와 더불어 파프리카 수확작업은 일반적으로 5~7일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광, 온도 등 환경영향을 크게 받아 수확량 변화의 진폭도 매우 크다. 예측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수확작업 인력조절이 가능함은 물론 프로그램에 의한 파프리카 생산단지의 예측 생산량이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부기관에 전달되어 이 자료를 기초로 수출물량과 국내 판매물량을 조절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경영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앞으로 파프리카 생산성 및 경영성 개선을 위한 생육 및 수확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설비, 난방비, 비료 등을 줄일 수 있는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참다래 고품질화로 수출 확대 추진

- 지난 22일 장흥군 안양면 소재 골드키위 생산자 과수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 대일본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농협무역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고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골드키위 수입 희망업체, 전남무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남 골드키위 작황, 향후 수확기 과수원 및 농가관리 등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 기술원(조운섭 박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년도 작황은 매우 양호하나, 이후 수확 전후 관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 특히, 수확 전 과수원 토양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수량을 줄이고 (TDR 센서 기준 25%이하), 추비, 영양제 살포를 중지하며,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 또한, 9월말부터 1주일 간격으로 수확 전 과실 내부 골드키위 황금색상 발현은 필수이며, 과실의 맛을 결정하는 건물 중(16% 이상), 과실의 단단한 정도(경도 4kgf 이상) 등을 점검하여 최소한의 수확기준을 통과한 과실을 과수원별로 맞춤형 수확을 함으로써 생산된 과일의 품질 균일도를 높이고, 수출 품질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농업기술원에서는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차례의 해금골드키위 수출단지 농가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금후에도 수확 전 세부적인 품질관리 기술을 유통회사와 농민단체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해금골드키위는 도내 약 400여 농가에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도 생산량은 1,500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판로개척이 절실한 산업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냉·온수를 이용한 원예작물 간이 육묘시설 개발

- 육묘비 절감, 품질향상 등 농가 애로사항 해결 기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온기에 원예작물을 안정적으로 육묘할 수 있는 냉·온수 순환 방식의 간이 육묘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시설하우스에서 다양한 원예 작물이 연중 생산 추세로 변함에 따라 전문 육묘장에 위탁 육묘를 하고 있거나 대량 생산한 모종을 구입하여 이용하는데, 농가에서는 육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나 모종 구입비용이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냉·온수 순환형 간이 육묘시설은 여름철 고온기에는 냉각수를 순환하여 저온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겨울철 육묘는 히트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순환하여 적절한 생육환경을 조절하여 육묘하는 기술로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졌다.
- 냉각수 순환 간이 육묘장은 냉수 20℃, 공중온도 25℃로 설정하여 팬으로 냉각수가 순환되도록 하였고, 단일 및 저온유지를 위해 야간에 보온덮개로 피복하여 육묘한 기술로 8월 상·중순까지 냉각수 순환 처리구의 근권 평균 온도는 21.5℃로 일반 관행의 27.4℃에 비해 5.9℃정도 낮았고, 최고 온도는 26.8℃로 관행의 29.5℃, 외기온 29.2℃로 2.4~2.7℃가 낮았다.



- 또, 같은 기간의 외기 최고 온도는 33~37℃로 측정되었으나, 근권부의 최고 온도는 21~24℃로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오이 고온기 육묘로 암꽃 착생이 낮아지는 오이를 육묘하여 25마디까지의 절성성을 조사한 결과 냉각수 순환 육묘 처리구에서 11%로 일반 육묘의 4~5%에 비해 높았다.
- 또, 저온단일의 육묘로 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 오이의 10~15마디 절성성은 냉각수 순환 육묘에서 24%로 일반의 8~9%로 큰 차이가 있어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밝혀졌다.
- 이번에 개발한 육묘기술은 저비용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원예작물을 연중 육묘할 수 있는 장점으로 토마토의 경우 10a에 심을 수 있는 육묘는 40구 트레이에 파종하여 14m<sup>2</sup>의 면적이면 충분하고 육묘비는 연간 2회 재배하였을 시에 160여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정종모 연구사는 “본 시설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상시적인 육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마토의 암꽃 개화와 착과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육묘비용 절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영농현장에 보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국산 과일·버섯 품종,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다

- 사과 '홍로', '감홍', 배 '황금배', 양송이 '새도' 지역 효자 작목으로 인정 -

- 국산 과일·버섯 품종이 지역 특산품종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개발한 사과·배·버섯 품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특산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과 '홍로'는 농촌진흥청에서 1988년 개발한 품종으로 9월 상·중순에 수확하는 추석용 사과다. '홍로' 개발 이전까지 추석시장에는 과숙된 '쓰가루(일명 아오리)'와 덜 익은 '후지(일명 부사)'가 출하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홍로'의 출시로 추석 사과시장은 안정됐다. '홍로' 품종의 전체 재배면적은 4,820ha 정도다.
- 전북 장수군은 사과 재배면적의 약 65% 이상 '홍로' 품종을 재배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과 '감홍'은 농촌진흥청에서 1992년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15.5°Brix로 높아 '가장 맛있는 사과'로 불린다. 10월 상·중순에 수확하며 외관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으로 최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 '감홍'은 경북 문경시의 특산품종으로 자리 잡으며 250ha 정도 재배하고 있다. 문경사과축제 때 소비자들이 직접 과실을 맛보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지역 특화품종으로 자리 잡게 됐다.
- 배 '황금배'는 농촌진흥청에서 1984년 개발한 품종으로 고급스러운 황금색 껍질을 가지며 달콤한 맛이 일품인 품종이다. 9월 상·중순에 수확하는 '황금배'는 과일 무게가 450g 정도인 중간 크기 품종으로 당도(13.3°Brix)가 높다. 과즙이 풍부하며 황금색 껍질이 얇고 투명해 꺾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약 320ha 정도 재배하고 있다.



- '황금배'는 울산광역시에서 특산품종으로 재배해 '황금실록'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과실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다.



▲ 홀로



▲ 감홍



▲ 황금배

-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해마다 1품종씩 양송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품종으로 '새연', '새도', '새아', '새한' 등이 있다.



▲ 새도



▲ 새아



▲ 새한

- 특히 '새도'는 2012년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하기 쉽고 버섯 형태가 우수 특징이 있다. 2013년 충남 부여에서 열린 새 품종 보급 평가회에서 참여 농가의 90%가 재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품종이며, 현재 국산 품종 보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양송이 주산단지인 충남 부여와 경북 경주에 개발한 국산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결과, 2010년 보급률 4%에서 2015년 37%까지 늘어났다.

- 단기간에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재배 환경에 맞는 국산 품종을 개발해 외국 품종보다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은 사과 '홍금'을 경북 봉화와 강원 정선으로, 사과 '황옥'을 경북 김천으로, 사과 '피크닉'을 경북 예천으로, 배 '신화'를 경기도 안성으로 보급해 지역 특산품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 보급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스마트 돈사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스마트팜을 축산 및 노지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스마트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 및 기반시설의 낙후 등으로 신속한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스마트 팜 설치농가('08~'16)는 204호이고, 면적은 126.6ha이다. 보급면적은 시설원예 111.8ha, 과수 16.2ha로 대부분 시설원예에 집중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8농가로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환경 및 사양관리 기술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 또한, 스마트 축사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문가 5명이 영광군 애니포크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용)을 방문하였다.
- 애니포크 농장은 스마트 돈사를 2013년에 준공하여 약 15,000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출하하고 있다.
- 스마트팜 돈사는 20동으로 구성되어 개체별 성장단계별로 사료의 종류와 급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메탄(암모니아 또는 황화수소) 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환기창 등을 제어하고 있다.
- 애니포크 농장은 스마트 돈사를 운영하여 사료이용의 효율을 높여 고기의 품질(지방색의 백색화)을 향상하고, 사육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20, 사료비 15%를 절감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윤봉기 소장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CT를 결합한 스마트팜을 적극 지원하는 현장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8.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 곤충전문 컨설턴트

#### □ 어떤 일을 하나요?

- 곤충전문 컨설턴트는 곤충 관련 활동(기르기, 실험하기, 채집하기, 소품 만들기, 교감 등)에 필요한 곤충이론과 야외생태, 사육법 등을 습득하고,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관리를 포함한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 지자체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곤충체험학습장 등 체험시설에서 곤충코디네이터로 활동하거나 곤충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관련곤충, 소재, 지역 등	시장규모(억 원)	
		2015	2020
학습용	체험학습장, 곤충생태관 등	49.4	69.1
애완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372~496	521~694
화분매개용	뒤영벌, 가위벌 등	432	575
천적용	무당벌레, 진디흑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0~50	40~67
식용	메뚜기, 번데기, 귀뚜라미, 애벌레 등	60	1,014
사료용	동애등애, 귀뚜라미, 밀웬 등	60	183
약용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20~30	39~58
지역행사	함평군, 무주군, 예천군 등	1,816	2,542
유용물질	아라자임, 코프리신, 와지네, 동심락 등	200	380
합계		3,039~3,193	5,363~5,582

자료 :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곤충 관련분야는 학습, 애완, 천적, 식용,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2015년 3,000억원에서 2020년 5,3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곤충산업은 애완용, 학습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3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곤충산업 지원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국립대	농학계	농생물학과, 잠사곤충(생물)학과, 천연섬유학과 등	22개 대학
	자연계	생물학과, 생물교육학과, 생명과학과, 생물응용학과 등	14개 대학
사립대	농학계	응용생물(동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25개 대학
	자연계	생물학과, 생물공학과, 생명과학과 등	17개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보건원, 화학연구소, 산림과학원(병해충과), 산하 도시시험장 등		10개 기관
민간연구소	한국곤충연구소, 고려곤충연구소, 농약회사 부설연구소 등		10개 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각도 농업기술원 등		18개소

자료 :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최영철, 2013)

\* 출처 : 농촌진흥청



## 9. 정책 동향

###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홍보 전문가 미디어파머 양성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농촌문화와 농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미디어파머 32명을 본격 양성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파머는 스마트폰으로 농촌축제 및 농식품 생산과정을 촬영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미디어파머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32명을 선발하여 1인 미디어 방송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9월에 4일간 진행했다.
- 스마트폰 활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개인방송 및 동영상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식품 소비촉진과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미디어파머를 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박사)은 “온라인에 「라이브 전남농업 방송」 채널”을 개설하고 “라이브서울 방송과 연계하여 전남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제조·가공시설 공동 활용해 6차산업 활성화

- 전남도, 10월 말까지 경영체 대상 방문 조사 -

- 전라남도가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제조·가공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실태조사에 나섰다.
- 6차산업은 농촌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인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남도와 전남농업 6차산업 지원센터의 주관 하에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산업 연구원이 실시한다.
- 조사는 6차산업 경영체 및 제조가공시설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2015년 말 기준 경영체 업태별 경영 현황, 6차산업 정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조사결과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6차산업 제조·가공시설로 공동 이용하는 등 시설 가동률을 활성화하는 연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는 전남농업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므로, 농업관련 경영체에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6차산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가족, 마을, 법인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소득을 찾기 위해 고민해 달라. 도에서도 현장코칭, 전문교육, 시설지원 등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종자검사 교육 실시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에서는 종자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대상은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자로 종자보증제도, 종자검사요령 및 방법, 씨감자 종자검사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교육은 포장(재배장소)에서의 검사방법과 종자에 대한 정밀검사 방법을 1, 2차 구분, 실시하며, 1차 포장검사 교육은 지난 5월 이미 실시한 바 있다.
-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 보증업무는 그동안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주로 담당해 왔으나, 지자체나 민간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15년부터 민간업체와 지자체에서 감자의 자체 보증업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 이는 식량종자시장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6년 현재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 관리사가 1만 5천톤 정도의 감자를 검사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종자산업법」에 따라 벼·보리·콩·옥수수·감자 종자를 판매, 보급하는 자는 반드시 품질을 보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그동안 씨감자를 판매하고 싶어도 보증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보증제도에 대해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증을 하지 않는 등 민간종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민간 보증종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10월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전남도,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 전라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등 26개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상시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포획검사를 확대해 해외 AI 유입요인을 감시하며, AI 기존 발생지역 및 철새 도래지 인근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및 예찰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가금사육농가 일제 소독 등 상시 방역체계를 정비해 AI 유입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과 관련해선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자연감염 항체가 검출된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의 경우 도내 반입을 제한한다.
- 전라남도는 방역규정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자금과 방역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해외 AI 발생 상황과 국내 철새 도래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제역 또한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빠짐없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10. 해외 농업정보

### ◆ 러시아, 쌀 시장 성장세

- 러시아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4~5kg을 기록하고, 유럽의 평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3kg인 점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쌀 수요는 매우 많음
- 러시아 쌀 생산량은 2014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쌀 경작지 면적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 쌀 소비량은 2013년부터 국내 생산량을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증가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량으로 충당하고 있음
- 러시아의 쌀 수입량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7% 감소했음
- 러시아의 기존 주요 쌀 수입국은 동남아시아로, 한국의 경우 주요 수입국은 아니나 2012년 이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러시아의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며, 3년 만에 다시 러시아의 쌀 수출량이 수입량을 넘어섰음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12월에 있었던 연설에서 “2020년에는 러시아인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식품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
- 2016년 1/4분기 기준 러시아 농기계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고, 러시아 정부가 농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농기계 업계가 주목받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농기계 생산 및 개발에 25~30%의 보조금을 지원한 정책이 러시아 농기계 시장 성장비결이고, 러시아 자체 브랜드가 러시아 농기계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 농기계 부문에서 중국산 알곡 수확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95% 증가했으며, 사료작물 수확기는 2015년 3/4분기에 중국산 제품이 러시아 시장으로 진입하였음
- 러시아 농기계부문에서 저렴한 중국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CJ의 햇반 등은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2015년 5월 이후 햇반 컵반(Хэтбан Копбан)의 매월 매출이 20%씩 증가하는 추세임
- 러시아가 농산물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자로 거듭나기 위해 농업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쌀 자체보다는 쌀을 이용한 간편 조리식품 등의 수출이 보다 유망하다고 사료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중국, 우유 소비 촉진과 농촌고용을 위해 낙농산업 육성

- 중국 정부가 우유 소비촉진과 농촌지역 고용증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낙농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농무부 장관이 관련 간담회에서 발표함
- 중국 정부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농무부 장관 회견문에는 현재 중국 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분의 1 수준이며, 아시아 평균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함
- 또한 농촌지역의 고용증대와 주요 농축산물인 우유의 공급안정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회견문에서 농무장관은 현재 중국 내에는 100만명의 낙농가와 1,000만두의 젖소가 있으며 수백개의 유업체가 있어 규모면에서는 상당하지만 경쟁력이 강하지는 않다고 진단함
- 특히 제품의 표준화 부분이나 브랜드 면에서 아직도 뒤떨어져 있으며, 생산비가 높아 낙농가나 가공업체 모두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함
- 또한 최근 몇 년간 유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낙농업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국내 유명브랜드가 설 자리를 잃어 유아용 분유인 경우 수입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그는 지난해 기준 중국내 신선유의 99.3, 유제품인 경우 99.5%가 정부 품질 기준을 통과하여 중국 유제품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강조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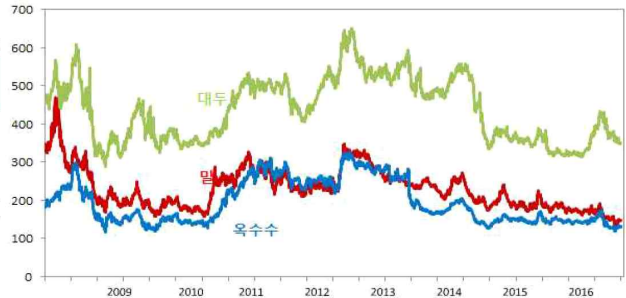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0. 03.(시카고 선물거래소)

전일 대비 모두 상승한 곡물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9.30)	전일대비	전월평균 ('16.8)	2015 평균
밀	147.71	▲0.8%	150	186
옥수수	132.51	▲2.2%	127	148
대두	350.53	▲0.4%	37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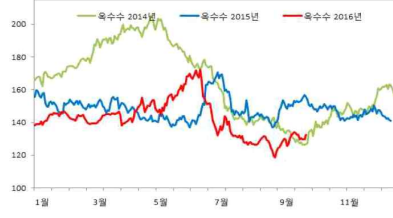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8% 상승 마감하였음. 분석가들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미국의 밀 재고량 추정치는 24억 부셸이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또한 2016년 밀 생산 추정치는 23억 부셸로 종전에 정부가 추정했던 23억 부셸과 비슷한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3.96에 마감하였으며, 펜자스 시티 상품 거래소 적색 경질밀 가격은 부셸 당 1센트 하락한 \$4.16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2% 상승하였음. 그러나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로 그 상승폭이 제한적임. 무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두 곳의 회사에 대해서만 옥수수 수출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함. USDA의 분기별 재고량 보고서에 앞서 9월 1일 기준 옥수수 재고량은 17억 부셸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3.26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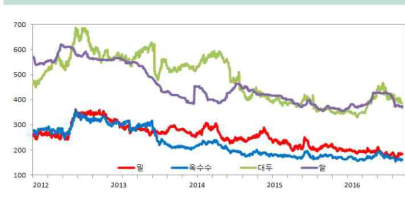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하였음. USDA에 따르면 민간 수출업자들은 지난 주 총 316,000톤의 대두를 판매하였음. 이 중 중국에 118,000톤을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198,000톤은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 판매하였음. 9월 1일 기준 대두 재고량은 2억 부셸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말레이시아 팜유 가격은 링깃와 약세로 인해 보합세로 마감.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가격은 부셸 당 \$9.48에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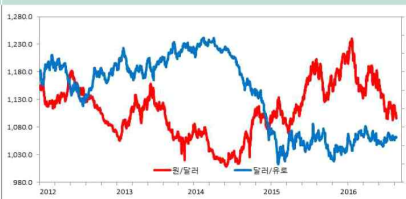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베이스는 중국의 수요 지연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 30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결정 영향 지속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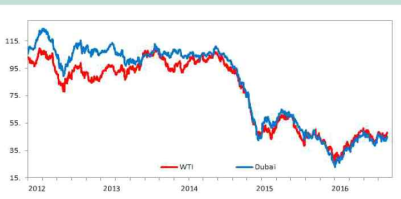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3	▼1.1%	환율	원/달러	1,096.3	▲0.1%
	옥수수	160	▲0.6%		달러/유로	1.1223	-
	대두	388	▲0.5%	국제유가	WTI	48.24	▲0.9%
	쌀	375	▲0.3%		Dubai	45.11	▲1.0%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9.29(수출가격), '16.09.30(환율), '16.09.3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2016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한 최고 농업기술자를 명인으로 선발함으로써 자긍심 고취하고, 선발된 명인의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농업인들에게 성공의지 확산 및 농촌 활력화에 기여함.

#### □ 선발개요

- 선발시기 : 2016. 9월 ~ 12월 \*12월 종합보고회시 시상
- 선발인원 : 5명(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별 각 1명)

#### □ 신청자격

- 전체 영농경력 20년이상, 동일영농분야 15년이상 경력을 가진자 \*자료증빙
-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
-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있으며 타 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 □ 신청방법

- 신청인 :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각 시군(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  
※ 관련서류는 전남농업기술원 공지사항 참조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업누리관, 체험활동 본격화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상설전시관... 씨 뿌리고 수확까지 모든 과정 체험 -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전남농업기술원에 마련한 상설전시관인 '농업누리관'에서의 농업 체험활동이 본격화됐다.
- 나주 봉황어린이집 원생 30여명은 지난 27일 144m<sup>2</sup> 규모의 농업 누리관 텃밭에서 무·배추 심기 체험을 했다. 어린이들은 흙을 만지고 밟으며, 무씨를 뿌리고 배추 모종을 심는 과정에서 농업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조직위측은 이날 어린이들의 무·배추 심기 체험을 11월 말 수확체험 까지 연계해 씨앗의 파종부터 수확의 기쁨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 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11월 진행 예정인 수확체험 행사에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키로 했다. 이번 수확체험으로 얻어진 수확물은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농촌체험 활동은 농업박람회 개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농업누리관'을 건립, 농업 관련 3D 주제영상과 전시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 농업누리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체험객은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전시팀(061-339-9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제행사로서 내실 있는 전시체험 콘텐츠와 농산업 수출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있는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 출처 : 전라남도

## ◆ 국산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종자 신청하세요

- 10월 28일까지 지역농협·낙농육우협회로 신청... 내년 2~3월 중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수입종보다 생산성이 뛰어난 국산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종자를 지역농협과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평옥' 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전국 농협(축협·낙협),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육우농가, 도(연합)지회, 낙(육)우회, 축산계 등)에 10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17년 2~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 '광평옥'의 건물수량은 ha당 19.5톤으로 수입종보다 생산량이 약 15% 많고 쓰러짐에 강하며, 남부지역 옥수수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에도 강하다.
- 또한, 수확기 늦게까지 푸른 잎이 유지되는 후기녹체성이 우수해 재배농가 선호도가 높고, 수입종 옥수수에 비해 가격도 20~40% 정도 저렴하다.
- 현재 '광평옥'의 재배면적은 1만 2천ha 정도로 젓소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손범영 박사는 "수입종보다 생산성이 높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0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